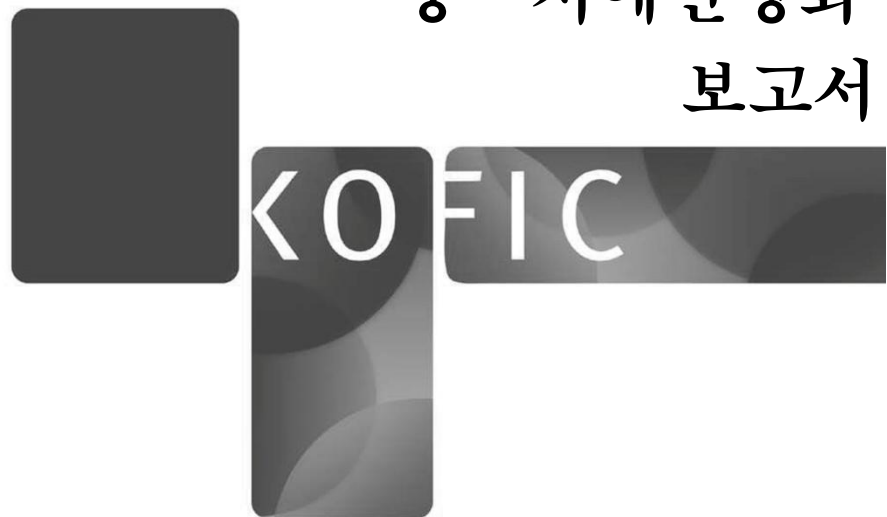


'중·저예산영화' 보고서



'중·저예산영화'
보고서



'중·저예산영화' 보고서

-중·저예산전문투자조합 관계자 대담

글 : 박 아 네 스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5

'중·저예산영화' 보고서
-중·저예산전문투자조합 관계자 대담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글 : 박 아 네 스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9

02

중·저예산영화, 전진과 후퇴의 역사 / 11

03

문제를 진단하라 / 14

04

결국 승부수는 전략! / 17

1. 들어가는 글

2015년 한국영화는 극장 총관객 수 1억 1293만 명을 모아 2014년 대비 4.9% 성장했다. 입장권 매출액 역시 879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극장 매출액은 총 1조 715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영화 매출액 역시 가장 많았던 건 아니다. 역대 한국영화 최다 매출액은 2013년 기록한 9099억 원이다. 2013년은 여러모로 눈부신 해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역대 최다 한국영화 매출액을 갱신했고, 무엇보다 투자수익률이 14.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15년 한국 상업영화의 투자수익률은 -7.2%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한국영화는 어째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도 투자수익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양극화와 '중박' 영화 실종¹이다. <한국영화>는 일명 '영화산업의 허리'로 불리는 중·저예산영화에 투자하는 중저예산영화펀드 관계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지난 몇 년간 중·저예산 한국영화에 투자해온 경험을 나눔으로써, 중급 규모 한국영화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대담을 통해 현황 진단을 넘어선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었지만, 그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태은정 얼마 전 영진위에서 「201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극장 총관객 수는 2억 1729만 명, 매출 총액은 1조 7154억 원을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1인당 극장 영화 관람 횟수는 422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산업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실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한국 상업영화 투자수익률이 -7.2%를 기록했죠. 천만영화는 해마다 3~4편씩 나오고 있지만 흔히 '중박'이라 부르는 300~500만 흥행작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작에 관객이 쏠리고 중급 규모 영화는 흥행에서 저조한 결과를 낳으면서 수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업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다 많은 영화가 고루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중저예산 한국영화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관계자를 모시고 현재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몸담고 있는 투자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주형 캐피탈원중저예산영화전문투자조합은 2011년 6월 결성돼 지난해 6월 투자 종료됐습니다. 만기일은 오는 6월인데, 아직 개봉하지 않은 투자작이 3~4편 정도 있어 이들이 다 개봉하면 회수하고 청산할 예정입니다. 결성 총액은 120억 원이었고, 총투자 금액은 288억 원가량 됩니다. 결성 총액 대비 240% 투자했으니 열심히 한 셈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평가 손익은 -16% 정도 됩니다. 주요 투자작은 <건축학개론>(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이웃사람>(2012), <반창고>(2012), <연애의 온도>(2013), <스물>(2015) 등이 있고, <널 기다리며> <루시드 드림> <해빙> <사냥>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민영 이수S&M콘텐츠전문투자조합은 2011년 10월, 결성 총액 100억 원으로 시작됐습니다. 투자 기간 4년, 운용 기간은 5년이라 지난해 10월로 투자는 종료됐고, 올해 10월이 만기입니다. 주요 투자작은 <내 아내의 모든 것> <공범>(2013), <더 웹툰: 예고살인>(2013), <숨바꼭질>(2013), <차이나타운>(2015) 등이 있고, <무수단> <널 기다리며> <무서운 이야기 3>가 올해 개봉합니다. 총투자 금액은 132억 원입니다. 캐피탈원

¹ 영진위는 투자수익률 계산 대상 영화를 '상업영화'로 정하고 있다.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 전국 개봉 스크린 수 100개 미만의 작품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에 비하면 투자 금액이 크진 않네요. 대신 저희는 작품당 투자 규모를 크게 가져간 편입니다. <내 아내의 모든 것>과 <숨바꼭질>은 거의 15억 원씩 투자했거든요. 지난해 규약이 바뀌면서 순제작비 36억 원이 중저예산펀드의 투자 기준이 됐지만, 그전까진 30억 원이었으니 꽤 큰 비중으로 투자한 셈입니다. 다행히 이런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 20%씩, 총 40%의 수익 배당도 했습니다. 콘텐츠펀드를 통해 성과 보수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성과 보수를 받기도 했고요.

허수영 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은 지난해 9월 240억 원 규모로 결성해 향후 5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작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개봉하는 이연희 감독의 <미씽: 사라진 아이>와 4월 크랭크인하는 유지태 주연의 <스플릿>까지, 2편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2. 중·저예산영화, 전진과 후퇴의 역사

태은정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한국 상업영화는 투자수익률 -72%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은 03%로 다소 부진했지만 2012년 이후 3년 연속 플러스 투자수익률을 내고 있었기에 결과에 모두 놀란 듯합니다. 한국영화 전체 관객 수가 늘었고, 천만 한국영화도 3편이나 나왔는데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중급 규모 영화가 부진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를 위해 중저예산 한국영화를 누구보다 눈여겨봐오셨을 것 같은데, 이들 영화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김주형 캐피탈원중저예산영화전문투자조합에서 투자한 영화들을 연도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년 6월 결성해 2012년까지 투자한 것을 하나로 묶고, 2013년 투자작과 2014년 투자작을 각각 따로 구분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138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15억 정도로 11%가량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 시기에는 16편을 투자해 8편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투자한 영화는 -29%, 2014년 투자한 것은 수익률이 거의 -5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추세를 보니 중저예산영화에 대한 관객의 선택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2015년 투자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의 결과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웃음) 긴 설명이 없어도 데이터가 현재 중저예산 영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민영 배급편수도 줄었습니다. NEW의 경우 2011년에 모두 105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했는데, <블라인드> <헬로우 고스트>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거의 대부분이 중저예산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수를 배급한 2015년에는 3편(<스물> <더 폰>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또 CJ E&M의 경우도 2011년 모두 6편의 중저예산영화를 배급해 <완득이> <도가니> <오작한 연애>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2015년엔 <악의 연대기> 정도밖에 없었죠. 물론 CGV아트하우스가 중급 규모 영화를 전문으로 하게 된 영향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이 과거만큼 중저예산영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우 제가 투자한 중저예산영화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 <수상한 그녀>(2014)입니다. 순제작비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219%의 수익률이 났죠. 또 <우아한 거짓말>(2014)은 20억 원 순제에 20%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상한 그녀>는 CJ E&M 영화고, <우아한 거짓말>은 CGV아트하우스의 첫 번째 메인투자작입니다. 한편 제가 운영했던 영화계정 중 중소 배급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펀드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4편에 투자했는데, 수익을 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제보자>(2014,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의 경우도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박스오피스 결과에 무엇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배급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민영 투자팀장이 지적한 것처럼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이 중저예산영화에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시장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수영 중저예산영화가 잘된 시기를 살펴보면 4대 투자배급사의 라인업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중저예산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 메이저에서 30억 원대 영화는 거의 투자배급하지 않죠. 그보다 순제 혹은 총제작비가 100억 이상 든 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영화 1~2편 정도가 100억 이상 대작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CJ E&M의 라인업을 보면 <아수라> <아가씨> <고산자, 대동여지도> <인천상륙작전> <리얼>이 순제 100억 이상이고, NEW 역시 <판도라> <부산행> <더 킹> 모두 100억이 넘습니다(<오빠생각>은 총제 100억 원).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중저예산영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들 영화의 흥행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

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저예산영화가 잘되던 추이와 NEW가 4대 메이저로 진입하는 과정이 맞아떨어집니다. 2009년 배급업을 시작한 NEW는 2013년 CJ E&M을 제치고 한국영화 배급 순위 1위 자리에 올랐는데, 이때 중저예산영화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상업영화의 투자수익률 역시 1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생 배급사인 NEW가 참신한 기획에 잘 준비된 중저예산영화를 연속해서 성공시키면서 중급 규모 영화 전반의 상황 역시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면, NEW가 드디어 ‘메이저’로서 대작을 라인업에 채워 넣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중저예산영화의 성공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태은정 제2의 NEW를 꿈꾸는 신생 투자배급사가 2014년 이후 다수 등장했습니다.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와우픽쳐스, 메가박스(주)플러스엠, 리틀빅픽쳐스 등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4대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중급 이상의 영화에 주로 투자하고 이들 중소 투자배급사가 중저예산영화를 주로 하는 구도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수영 그렇게 명확히 양분돼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행 가능성이지 제작비 규모는 아니니까요. 물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투자 이슈가 있으니 4대 메이저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중소 배급사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들이 1년에 메인투자하는 편수는 1~2편 정도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늘었다고 해서 중저예산영화의 편수가 그에 상응해 느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NEW는 메이저 3사 외에는 투자배급사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장했습니다. 3사에서 선택받지 못한, 소위 말해 애매한 사이즈의 영화 대부분이 NEW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투자배급사가 거의 10군데쯤 됩니다. 문제는 경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자연스레 올라간다는 겁니다. 투자배급사 입장에서는 어렵게 손에 넣은 만큼 흥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고, 이는 좀 더 힘 있는 배우와 감독을 찾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100억 원 규모의 대작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꼭 적은 예산의 영화만을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김현우 앞서 강조한 바 있지만 흥행 시장에서 배급 파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모두 아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경험은 적은 신생 배급사와 선뜻 손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꼭 자금력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워너브러더스가 이십세기폭스에 이어 <밀정>으로 한국영화 투자를 시작했는데, 유명 감독이나 제작사의 경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더군요. 제아무리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라 하더라도 국내 배급 경험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4대 메이저가 아닌 투자배급사가 대작, 혹은 흥행력 있는 감독과 배우가 이끄는 영화를 하게 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은정 2010년부터 2015년의 한국영화 흥행 상위 10위권을 살펴보면 중저예산영화라 할 수 있는 순제 40억 원 미만의 영화가 2010년과 2011년 각 6편, 2012년 5편, 2013년 3편,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2편과 1편입니다. 투자수익률은 각각 110%, -14.7%, 133%, 141%, 03%, -72%로 중저예산 영화의 성공과 투자수익률이 똑같은 궤를 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만 살펴봐도 흥행에 성공하는 중저예산영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이디어가 기발하거나 완성도 높은 중저예산영화가 줄었기 때문일까요?

허수영 일단 상업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순제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272억, 325억, 304억, 404억, 438억, 408억 원인데,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 중저예산영화가 흥행 순위에 많이 랭크된 건 평균 순제작비 자체가 40억 원에 못 미치는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평균 제작비가 40억 원을 웃돕니다. 멀티 캐스팅이 일반화되면서 배우 출연료가 급상승했고 연출료도 늘었습니다. 또 표준군로계약서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 장르를 찍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40억 원은 넘어갑니다. 현재 중저예산전문투자조합의 규정에는 순제 36억 원이 중저예산의 기준이지만, 투자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배우 한두 명만 붙어도 30억 원대는 어렵도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창의적인 중저예산영화 기획이 줄었고, 이것이 흥행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기보다 제작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또 '중저예산'의 범주로 대작이 아닌 모든 영화를 묶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극저예산, 저예산, 다양성영화, 중급 규모 등 좀 더 세밀한 구분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우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예산영화전문투자조합의 투자 기준이 지난해 상향 조정됐지만 업계에선 이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순제 50억 원은 돼야 중급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영화계에는 코미디나 멜로가 거의 실종 상태인데, 이들 장르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제작 가능한 반면 예산이 적어 오히려 캐스팅과 연출 의뢰 등에서 흥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걸 모두들 체감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런 장르는 시나리오도 더 나오질 않고요. 현재의 투자 상황, 제작 상황이 중저예산영화 개발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영 저희도 최근 영화계정 투자조합 제안서를 쓸 때 주요 투자 대상인 중급 예산의 폭을 순제 30~50억 원으로 뒀습니다. 50억 원 정도 선까지는 돼야 괜찮은 배우, 완성도를 기대해볼 만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4대 메이저 외의 중소 투자배급사 역시 순제 40억 원 미만의 영화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내 아내의 모든 것>이 순제 28억, 총제 45억 원짜리 영화인데 민규동 감독에 임수정, 이선균, 류승룡이 주연입니다. 지금이라면 저 예산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패키징이죠. 몇 년 사이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주형 문제는 순제 36억에 P&A로 20억 원을 썼을 때 손익분기점BEP이 140만 명가량인데 이마저도 쉽게 넘보기 힘든 게 지금의 흥행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100만 명도 안 들거나 500만 이상 들거나, 하는 식이거든요. 박스오피스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의 경우 대작 중심의 라인업을 짜고 있고, 중소 배급사는 자금력과 역량 면에서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구요. 그러면서 중저예산영화 기획개발 분위기도 주춤한 듯합니다.

3. 문제를 진단하라

태은정 지금까지 중저예산영화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획개발부터 배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나눠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앞선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저예산영화에 걸맞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시나리오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기보다 ‘이런 기획이 투자받을 확률이 적어졌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손민영 창투사의 경우 펀드를 갖고 있지만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자의 제1 목표가 수익성이기 때문에 투자배급사만큼 다양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죠.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도 소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투자배급사가 원하는 패키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함에도 캐스팅 등에 힘을 쓰면서 예산을 키우는 일도 흔하고요. 투자배급사가 라인업의 다양성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 배급사가 늘면서 소싱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불러온 역효과도 있습니다. 과거라면 좀 더 다듬어져야 할, 다소 느슨한 기획도 투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김현우 얼마 전 개봉한 모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 단계부터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인 데다 배우와 감독 패키징도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배급사가 야심 차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키워 힘을 주다 보니 시나리오가 갖고 있던 장점인 따뜻한 정서가 되레 훼손됐습니다. 흥행에도 실패했고요. 모두 잘 알고 있듯 영화는 산업인 동시에 문화입니다. 투자배급사의 목표가 오로지 ‘상업성’에만 있다면 다양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허수영 인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저예산영화는 예산 구조상 아무래도 유명 작가나 감독, 배우와 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의 경우 처우 문제 등으로 시나리오 작가층이 두텁지 않고, 그나마 유명 작가에게 일이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유명 감독의 경우에는 직접 제작사를 차리고 제작을 하는 등 창작 자체에서도 작업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신진 인력의 유입 없이 일부 잘나가는 이들 위주로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 게 안타깝습니다.

손민영 2013년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화제가 된 <더 테러 라이브>(김병우)와 <숨바꼭질>(허정), <감시자들>(조석, 김병서)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연출작이었죠. 2015년에도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이 있었지만, 과거만큼 새롭고 유능한 인력이 영화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주형 중저예산영화야말로 신인 감독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흥행에 성공하면 대체로 차기작으로 중급 규모 이상의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물은 들어오지 않으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 감독하면 흔히들 ‘독창성과 기획력’을 떠올리고, 중저예산영화의 미덕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투자배급사 구도 아래서 과연 이것이 성취 가능한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제작은 물론 편집 등의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투자배급사가 넓고도 깊이 관여합니다. 제작사 대표 또는 투자사와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인 감독이 여기 맞서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색다른 기획력이 돋보이는 중저예산영화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수영 촬영 중에 현장 편집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모니터 시사, 블라인드 시사라는 것을 진행해 관객 평점에 따라 편집의 일부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옳다, 그르다’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이렇게 해서 좋아진 영화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균형’인데,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김주형 투자 쪽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어쨌거나 데이터와 패키징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결국 계량화된 기존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고요. 쉽게 예를 들면 전작의 흥행 스코어는 기준이 되지만, 연출 성향이 투자의 잣대가 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독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역량 역시 과거만큼 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현우 할리우드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화를 기획합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텐트폴'을 몇 년간의 계획하에 구상해낼 수 있죠. 우리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큰 영화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름 시장을 두고 4대 메이저 모두 100억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를 내놓으며 경쟁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투자배급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웃음)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산업화되고 계량화된 잣대로 모든 영화를 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저예산영화의 경우 기획 당시의 개성이 살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같은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태은정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 중저예산영화 가운데 성공한 <건축학개론>(명필름), <내 아내의 모든 것>(영화사집), <늑대소년>(영화사비단길) 같은 영화는 오랜 내공을 가진 제작사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편, 투자 부분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몇 해 한국영화의 수익률이 제고되면서 상당수의 중소 배급사가 생긴 것과 함께 금융권 자본의 유입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많은 수의 중저예산영화가 흥행에 거둬 실패한다면, 오랜만에 영화계로 눈을 돌린 재무적 투자자가 다시 관심을 거두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영 최근 금융권 자본에 관한 뉴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규모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할 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들어온다 한들 원금보장 형식이거나 우선순실충당을 요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었고요. 순수한 의미의 F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면 해당 자본의 유무에 그리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수영 저는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C E&M의 경우 금융권 펀딩 규모가 총제작비의 50~60%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산업도 일정 정도의 흥망의 추이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이 호황기를 누리며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버블이 꺼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다시 전선을 가다듬어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점을 찍은 게 2012년과 2013년이고, 지금은 하향 곡선에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져 다시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2008년처럼 호되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새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 투자를 오래한 저희 같은 창투사의 경우, (제작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화계와 일정 정도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태은정 흥행 시장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이유 중 하나가 관객이 '극장에서 볼 영화'와 'IPTV로 볼 영화'를 구분하기 때문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극장에서는 대작으로 관객 쏠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저예산영화가 그만큼 IPTV에서 성공하고 있을까요? 스코어만 보면 안방 역시 대작이 더 잘되거든요.

허수영 근본적으로 극장이든 안방이든 흥행성이 큰 영화가 잘됩니다. 또 중저예산영화가 극장을 등한시해도 될 만큼 안방극장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아트하우스 계열의 배급 라인이 따로 있지 않죠. 다시 말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영화가 동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니 딱 봤을 때 유명한, 돈을 많이 쓴, 홍보가 많이 된 영화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중저예산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배급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김현우 제가 투자한 영화 가운데 <마돈나>와 <산다>의 경우,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개봉 스크린 수 각 64개, 32개)로 개봉했어도 흥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1만 8천 명과 4천 명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죠. ‘해외영화제 프리미엄’ 같은 건 이제 없어진 듯합니다. 중저예산영화가 최근 힘을 받지 못하는 데는 창작자와 투자자, 배급업자와 상영업계에 이르는 영화계 모두에 일정 부분씩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객 성향이 변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문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락’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생활 역시 녹록지 않은데, 그 영향인지 머리를 식힐 오락용 영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죠. 창작자의 개성과 의도가 뚜렷하게 반영된 예술영화나 중저예산영화보다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기획된 대형영화, A급 배우를 볼 수 있는 영화에 관객이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허수영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동주>(루스이소니도스 제작, 메가박스㈜플러스엠 배급)의 행보에 더 눈이 갑니다. 순제 5억 원이 들어간 작은 영화지만, 94만 명(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3월 7일 기준)의 관객을 모으고 있죠. ‘작은 영화는 안 된다고 체념하기보다 제작사와 투자사가 나서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하고 생각하게 한 작품입니다.

김현우 <동주>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연식 감독의 시나리오가 좋고, 연출로 이준익 감독이 결정되면서 메인투자사에서 실제로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컬러로 찍고 사이즈도 키우자’는 제안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작자(신연식)와 감독이 이를 거절하고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태어난 결과물이 <동주>입니다. 한국 영화계는 어느 순간부터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한데, <동주>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가운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영 언젠가부터 제작사도 투자배급사도 ‘돈을 많이 넣고, 더 많이 벌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 국내 극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규모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실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조금쯤은 색다른 시도를 하는 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꼭 예산을 줄이는 게 답이라기보다 해당 영화의 타깃 관객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로 어떤 감각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국 승부수는 전략!

태은정 앞선 이야기 가운데 2000년대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영화산업도 2012년과 2013년의 고점을 찍고 하강 추세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 투자가 늘고 제작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수익성 면에서는 다시 어려워지는 시기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엔 '업앤드다운'이 있기 마련이고요. 중요한 건 역시 내리막을 최소화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의 영화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대작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는 건 사실 업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메이저 투자배급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 같은 창투사는 물론 감독과 배우, 제작자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 전체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현업에서 일하는 이들에겐 다소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작 양산과 그에 상응한 중저예산영화에 대한 홀대는 우리 모두가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영화산업도 바이오리듬 같은 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땐 투자에 그만큼 깐깐해지니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주춤했다고 해서 너무 심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화계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나요?(웃음) 2015년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는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집중해야 할 건 더 좋은 영화, 보다 다양한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일 겁니다.

손민영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해 성적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저예산영화로 한 정해 본다면 올해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은 갖기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작품 수가 많지 않고, 큰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 성향 역시 올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김주형 스릴러 장르에 대한 피로도 얘기가 몇 년째 있긴 하지만 중저예산으로 제작 가능한 장르가 한정돼 있고, 그 몇 안 되는 장르 중 BEP 혹은 그 이상의 흥행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장르는 여전히 스릴러입니다. 때문에 올해도 스릴러가 다른 장르에 비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저 역시 중저예산영화가 지난해와 달리 약진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허수영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은 지난해 가을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민은 투자의 무비율을 채울 만큼의 투자작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거둬 이야기한 것처럼 순제 36억 원짜리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에서 '중저예산영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업계 내의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촬영 후 편집 과정에서 블라인드 시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작사와 투자배급사가 시나리오를 놓고 예산 책정을 할 때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매우 엉성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재를 이런 장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적정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P&A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20억쯤 하니까 그 선에서 P&A 규모를 결정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야 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CJ CGV 같은 경우 관객 성향에 관한 빅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 특색에 맞는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지역과 어느 시간대에 배급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를 가능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규모로 승부할 수 없는 중저예산영화의 경우, 결국 승부수는 전략을 얼마나 세밀하고 조밀하게 짜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 책정부터 배급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